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19년도 제2호

© Ismael Martínez Sánchez / ACN

“저는 세례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해성사를 할 수 있고,
이로써 세례의 은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세례를 다시금 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2013년 11월 13일 일반 말현 중)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 기업가가 저에게 “매일의 노력을 통해 예수님과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식은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금식이 무슨 웰빙 수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언가를 위해 자신의 욕망을 자유 의지로 내려놓는 그리스도교적 사고입니다.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수도 공동체 회원들이 우리의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안락한 삶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늘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을 위해 소비를 줄임으로써 마련한 것들을 박해받고 고통받는 교회에 나누어 주는 행위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순 시기에 기도와 나눔이라는 방식을 통해 금식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을 마주하기에 저의 이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우리 교회는 사순 시기를 맞아 순례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이 여정은 우리를 부활 축제의 장엄한 할렐루야로 이끌 것입니다. 이 시간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이 구원을 위한 희생의 표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선한 것이 들어 있는 보물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받은 표징들은 십자가, 우리를 은총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성사,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와 청원,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진 모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십자가의 표징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빛, 모든 영적 능력, 모든 희망
의 근원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노예를 육보이기 위해 쓰이던 나무토막은 새로운 세상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곳에서 그 언제가 되었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값진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승리의 빛 또한 빛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빛은 얼마나 찬란한가요! 그 빛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삶이 이제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자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희생 제물이 되셨으며 돌아가심으로써 성부께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리스도의 용서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수에게조차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루카 23,4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이 치유의 은총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한없이 자비로우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해성사는 참회하는 마음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진실된 의도로 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다시 넘어질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고해소로 향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의 본질과 같은 이 성사에 다시금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내부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그리고 개혁과 쇄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쇄신은 각자의 영혼에서 성취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를 사용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고해성사를 집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하며, 고해성사는 다른 일에 앞서 집전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제들이 고해성사를 자주 봄으로써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사목 활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신앙인은 나이와 지위에 관계없이 고해성사를 규칙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신자 개인은 물론 그의 가족, 그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그리고 온 교회를 통틀어 모든 이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로써 평화와 선의 혁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ACN 재단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Cardinal Mauro
Piacenza

성 바오로, 오늘날의 모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89년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거행된 세계청년대회에서 “모든 새로운 세대에게는 새로운 사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미얀마에 성 바오로 선교 수도회를 출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이 수도회 수사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곁으로(ad gentes)’라는 수도회의 카리스마와 “목마르다.”(요한 19,28)라는 모토가 수도원의 로고를 둥글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는 이곳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사업을 행하며 이를 완수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도회의 주보성인인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께서 선교 사업을 3년 동안 면밀하게 준비했던 것처럼 이곳은 지원기, 청원기 예비 수사들의 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수도회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증거로 삼아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교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에 맞서기 위해서 예비 수사들은 탄탄한 신학적 기반과 성경 및 전례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들은 그밖에도 교회 음악 수업을 듣고, 현대 사회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 기술을 배웁니다. 또한,



컴퓨터 교육 과정

미얀마 메토의 교육 센터에 모인 성 바오로 선교 수도회 형제들

1주일에 한 번씩 병든 이를 찾아가고 외딴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마을도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 곁으로’ 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 바오로 선교 수도회 수사들은 오늘날 미얀마의 여러 교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입회자들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청원기에 5명, 지원기에 42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여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수도회가 교육비, 생활비, 여행비 등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들은 돈을 아예 벌 수단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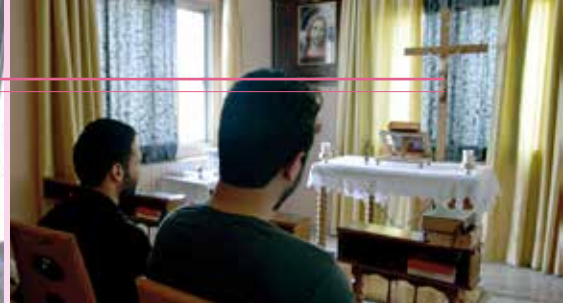
그렇다고 해서 이미 마음과 뇌리에 새긴 소명을 저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사 교육 업무를 축소하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에 성 바오로 선교 수도회는 교육 사업에 필요한 비용 약 890만 원을 ACN에 요청하였고, ACN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루카 10,7 참조). 그러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품삯이 되는 것도 우리 ACN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미소

인도의 말라바 선교 수도회 수사들은 잊혀지고 실패한 사람들의 형제들입니다.

70년 전 트리수르 교구에서 설립된 이 수도회는 현재 18개 교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사들은 수도회의 프란치스코회적 카리스마를 “낮은 자리에서의 봉사를 통한 복음화”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삶을 살면서 교리를 공부하고, 정신지체아동과 범죄에 가담한 청년을 보살피며 고아원을 운영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

를 도우며 나이 들고 버려지고 아픈 이를 찾아가는 등 매일 오랜 시간 동안 일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수사들은 그리스도의 손길이며 미소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때로는 지치게 하고 영적인 힘을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수사들은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영적 배터리’는 시시각각으로 새롭게 충전되어야 합니다.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은 피정과 교육입니다. **하지만 수사 43명이 2주간의 피정과 교육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부족합니다. 이에 ACN은 약 395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방정식, 기도 더하기 공부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한처음에 말씀이 있었습니다(*In principio erat Verbum*). 모든 것의 시작에는 창조의 이성 이 있었습니다. 이성 없는 신앙은 쇠퇴하며 신앙 없는 이성 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신앙과 이성이 서로 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성을 활용하는 것은 계명과도 같 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시리아처럼 이슬람교 국가에서 이성을 활용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교육을 잘 받은 청년만이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고, 그 리스도인은 대학생이 되어야 군대에 갈 수 있습니다. 바 께 말하면, 오직 교육을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환경에서 주변 사람에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해 주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그리스

도인은 자녀의 교육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가장 첫 번째 걱정거리는 바로 학교 교육입 니다. 특히 알레포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피난을 떠났 다가 귀향을 했던 도시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간에 다음 과 같은 걱정을 할 것입니다. “알레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누가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ACN이 시내에 있는 10곳의 지역 교회와 함께 교육 프로 그램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성사된다면, 알레포 학생 7,340명은 8개월간 매달 25,000원씩 지원받게 될 것 입니다. 학생들이 통학, 식사, 학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교육을 뒷 받침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 주는 것 을 지향합니다. ‘기도 더하기 공부’는 알레포의 학생들을 위한 방정식이며, 더 나아가 시리아의 평화를 위한 방정 식이기도 합니다. 새 학년을 시작하는 알레포의 학생들과 함께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우유 한 방울의 희망

우유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때로 는 값이 매우 비쌉니다. 오늘날 시리아에서 기본적인 영양소 를 섭취할 수 있는 가정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ACN은 3년 전부터 시리아의 그리스도인 가정을 지원하는 ‘한 방울의 우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1세 미만 어린이의 명단을 작성하였고 치안이 안전한 지역에 배급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영양가 있고 신선

한 분유를 규칙적으로 공급합니다. 대략적으로 3,000명의 어린이들이 매달 일정한 양을 배급받고 있는데, 그중 250 명은 아직 첫 돌이 지나지 않아 충분한 양의 우유를 특별 히 더 잘 먹어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알레포의 모든 그리스도교 가정 어린이가 ‘한 방울의 우 유’ 사업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앙의 경 계를 넘어 아이들을 튼튼하게 키우며 평화로운 삶에 대한 희 망을 키워 나가지만, 한 달에 2500만 원 가량의 공급 비용 이 드는 것이 큰 부담입니다. ACN이 1년 치에 달하는 비용 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요르단에서 살아남기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리아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시리아의 난민들을 끊임없이 도와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이어집니다.”
신생아를 돌보고 있는 바키라 수녀

시리아 난민들은 우선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었으며, 폭력과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시리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요르단 도시 카락에는 이탈리아의 콤포니 선교 수녀회가 세운 병원이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중에서 병에 걸리거나 아픈 이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병원은 난민들의 응급실이자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아델레 수녀의 말에 따르면 이 병원이 “우선적으로 돌보는 사람은 임신한 여성과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라고 합니다. 어린이는 시리아의 미래입니다. 어린이가 없다면 평화에도 미래가 없습니다. 난민들은 응급 치료를 받고 나면 자활을 시작하고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고향인 시리아에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난 8년간 전쟁이 이어지면서 난민의 수도 더욱 증가했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난민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콤포니 선교 수녀회 역시 마한가지입니다. 게다가 X선 촬영기마저 더 수리가 불가능할 지경으로 고장나버렸습니다. 환자들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전력으로 작동하는 환기 시스템도 자꾸만 동작을 멈추고 수술실마저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살다싶이 하며 매일같이 일하지만, 아무도 현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난민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필요한 약이 있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못합니다. 시리아에 있던 병원들도 전쟁 초기에는

국제 기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 도움의 손길마저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녀들은 임신한 여인과 질병에 걸린 어린이들을 위한 이 병원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녀들이 활동하는 지역은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150km나 떨어져 있어서 구급차를 부르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에 수녀들이 시리아의 난민들을 계속해서 돌볼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ACN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난민들의 얼굴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는 복음 말씀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ACN은 시리아 난민들의 의료 지원을 위해 약 6400만 원을 전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거라.”
다리 재활 훈련 중인 시리아 어린이 미리암



섭리의 가정

“하느님을 위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도 큰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1673-1716)은 일생 동안 많은 일을 했고, 오늘날에도 그의 영성을 따르는 성 가브리엘의 몽포르 형제들이 큰 일들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 위대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자신이 선택한 봉헌된 삶의 표징을 행동과 생각으로 보여 줍니다. 성 가브리엘 그리스도교 교육 형제 수도회의 형제들은 무엇보다도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최대 도시 다르에스살람의 수도원을 이끄는 마타이 몰라카라 수사는 “교육은 우리의 카리스마”라고 설명합니다. 이곳 수사들은 학교를 운영하고 피정을 열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들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것은 교리교육이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성 가브리엘 형제회가 2009년부터 중동부 지역의 내륙 도시 모로고로에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에는 수련 수사가 3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총 7개국 출신의 수련 수사 23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회원은 1,300명에 이르며, 세계 33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매일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를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빛을 준 인생의 기준”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사목표어인 ‘Totus Tuus’(온전히 당신의 것) 또한 성 루도비코 마리아의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은 자신이 설립한 수도회를 “섭리의 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르에스살람에서 활동하는 수사들도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자를 모아 가난한 이에게 주고 밭에서 일한 소출을 여러 가정과



몽포르 수도회 수련 수사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나눕니다.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이 들고 아픈 이들이 사는 마을을 찾아갑니다. 수사들은 이곳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르에스살람의 수사들은 그동안 손수 일을 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원들이 너무 많아져서 땅을 일굴 밭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지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야 할 학생은 수천 명이 더 늘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위해서도 교육을 잘 받은 수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에 성 가브리엘 형제회에서 수사 교육에 필요한 비용 590원 가량을 ACN에 요청했습니다. 몽포르의 형제들은 성모님의 도움으로 다시금 섭리에 의탁합니다. 이들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땅을 일구고 바나나와 옥수수 등 과일과 야채를 수확할 것입니다. 닭장을 농장으로 개조하여 토끼 및 소 열 마리, 돼지 스무 마리를 기를 계획도 있습니다. 축산업으로 생계비를 마련하는 것이 이들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1~2년의 준비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과 선교를 위한 모험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들을 돕고자 합니다.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사랑의 저금통

저는 매달 저금통에 동전을 모읍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그동안 모은 돈을 기부합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 기부할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돈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연결고리

〈사랑의 메아리〉를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성서의 땅에서 겪고 있는 큰 고통을 알려 주시며, 이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과의 연결고리를 회복하고 가정에서 평화를 교육하면 온 세상의 모든 가정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랜 친구가 전하는 안부 인사

여러분이 이루어 내는 놀라운 일들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으로서, 박해받고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일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베렌프리트 신부님의 길을 걷는 여러분은 정말로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 같습니다.

저는 몇 해 전부터 여러분의 활동을 주변에 알리며 돕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의 바다에 그저 작은 물방울 하나를 보태는 데 불과하겠지만, 이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동적인 이야기

저는 〈사랑의 메아리〉를 읽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소식지의 내용은 물론이고 다른 후원자들의 이야기에도 자주 감동받습니다. 그중에는 말 그대로 ‘과부의 헌금’을 내는, 나이 든 연금 생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의로움의 표징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선물을 보고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한국 후원자 여러분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04537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휴대폰 문자: 010-7475-6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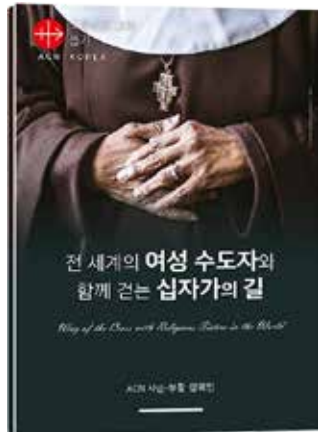
ACN 한국지부, 대전교구 천안쌍용동성당 방문

ACN 한국지부가 지난 1월 26일(토) 해외 원조 주일을 앞두고 대전교구 천안쌍용동성당을 방문했습니다. ACN의 대립·성탄 캠페인에 함께하며 시리아 그리스도인 난민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한 초등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미사 중에 시리아 등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알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지훈 신부님과 천안쌍용동성당 초등부 어린이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캠페인

전 세계의 여성 수도자와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이번 사순 시기에 ACN은 전 세계의 여성 수도자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ACN 한국지부의 이사를 맡고 있는 주교와 사제, 도움이 필요한 세계 곳곳에 현재 파견 중이거나 파견을 다녀온 한국의 사제와 여성 수도자들이 묵상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신청 방법을 통해 ACN 십자가의 길 소책자를 받아보시고,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 사목 활동을 펼치는 전 세계의 여성 수도자들을 위하여 ACN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신청하기

휴대폰 문자

ACN 공식휴대전화(문자전송)

☎ 010-7475-6440

이름, 세례명, 주소, 신청부수를 휴대폰 문자(SMS)로 보내 주세요.



“때로는 진심으로 지칩니다. 때로는 정말로 이제 우리가 포기해야겠다, 그리고 모두가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의 끈이 되어야만 합니다.”

- 시리아 알레포, 애니 데메르잔 수녀



2018년, 세계 85개국에서
여성 수도 공동체 448곳이
ACN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성 수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는 일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ACN과 함께, 이들의 힘이 되어 주세요.

여성 수도자 돕기

검색

☞ 다 읽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